

완주군 민원실 '좋아요'

도내 최초 '정부 3.0 국민행복민원실' 선정 전국 243개 지자체중 정부 인정 '전북 유일'

완주군 종합민원실이 주민 접근성과 편의성 등에서 앞서는 곳으로 위상을 다졌다.

군은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민원실 대상의 민원서비스, 민원실 시설·환경, 민원정책, 민원제도 개선 등의 심사지표(5개 지표 24개 측정항목)에 높은 점수를 평가받아 전북 도내 유일하게 '정부 3.0 국민행복민원실'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올해 '정부3.0 국민행복민원실'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완주군은 군민중심

의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주민이 참여하는 민원안내 자원봉사자 도우미 운영으로 내방방문 민원인의 손발이 되어 부서안내 및 민원 신청서 작성 등 민원불편사항을 도와주어 주민이 감동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했다.

매주 수요일 건축사와 공인중개사가 저소득층 대상으로 무료건축설계서 작성과 매매계약서 작성 등 무료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되고 있다.

특히 공직자 친절 생활화로 주민들

에게 사랑받는 대민친절 공무원 양성을 위해 매주 월요일 일과시작 20분 전 친절교육을 진행하여 전 직원이 친절실천을 다짐하고, 전화예절 중요성, 방문민원 응대요령, 경청의 기술 등 민원공무원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자세와 실제 경험을 통한 사례 위주로 진행해 교육 체감도를 높이고 있으며, 직원들간 매월 선의의 경쟁을 통해 비밀투표를 진행하여 '이 달의 베스트 친절 왕'을 선발하는 등 민원담당 직원의 사기를 높이고 있다.

이밖에도 군민이 즐겨찾고 싶은 '내 집 같은 편안한 고객전용공간' 제공을 위해 북 카페, 열린상담실, 취약계층 배려시설 등을 새롭게 단장했으며, 누구나 쉽게 민원처리를 할 수 있도록 민원서류 외곽어 번역본과 민원종합지침서 민원편람을 제작 비치하여 누구나 쉽게 민원처리를 할 수 있도록 민원행정 제도개선에 앞장섰다.

이번에 '정부3.0 국민행복민원실'로 선정된 완주군은 오는 11월 24일에 2016년 민원공무원의 날 행사 시 국민행복민원실 선정 인증패 전달과 정부포장이 주어질 계획이다.

송양권 종합민원실장은 "앞으로도 군민이 감동하는 민원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군민이 행복한 으뜸 국민행복민원실 운영에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황정수 무주군수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에서 장보기를 하고 있다.

'추석준비는 전통시장에서'

무주군, 장보기 행사 진행

무주군은 9월 1일부터 13일까지 무주반딧불시장과 무봉대덕산시장, 설천산도봉시장, 안성덕유산시장에서 추석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통시장 장보기에는 무주군과 (사)전북경제살리기 도민회의 무주지역본부, 소비자보호센터 무주군지부, 시장상인회, 대한주부클럽연합회 관계자 등 50여 명이 함께 하고 있으며 장보기와 함께 은누리 상품권과 전통시장 이용, 물가안정 캠페인을 함께 펼쳐 의미를 더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난 5일과 6일 안성덕유산시장과 무주반딧불시장에서 주민들을 만난 황정수 군수는 "시장이 살아야 지역에도 활기가 된다"며 "상인 여러분께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최고의 품질과 친절로 승부를 걸어주시고 주민여러분께서는 건강한 밥상을 위해 내 지역 시장을, 관광객 여러분께서는 무주의 맛과 인심을 만끽하시기 위해 전통시장을 이용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전통시장 은누리 상품권은 무주군 농협과 우체국, 전북은행, 새마을 금고와 신협에서 5% 할인된 금액으로 구입할 수 있다.

무주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선도 지자체

2021년까지 178억 투입 관내 노후 관로 개량

무주군이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의 선도 자치단체로 선정됐다.

지방상수도 현대화는 노후 지방상수도 개량사업의 시급성과 군 지역의 재정취약성을 고려해 노후관로 개량을 2017년 신규 국고지원 사업에 포함시켜 진행하는 것으로 2021년까지 5년에 걸쳐 178억이 투입된다.

이중 50%가 국비로 지원되며 경영개선 및 실적평가 등을 통해 20%가 추가로 지원될 예정이다.

무주군에 따르면 무주군 전체 상수도관로 299km 중 38%에 해당하는

115km가 20년 이상이 된 것으로 누수율이 44.2%(전북평균 22.8%)에 달해 유수율 제고를 위한 상수관로 개량사업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이에 무주군은 현대화사업 선도 자치단체에 포함되기 위해 환경부와 기재부를 지속적으로 방문, 사업선정의 필요성을 설명해왔으며 개량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을 인정 받았다.

무주군 시설관리사업소 최성용 상수도 담당은 "전국 20개 선도 자치단체에 포함된 무주군은 경영개선평가 결과 2016년에 국비 60% 지원을 받게

됐다"며 "녹물과 누수로 인한 단수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군민들이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무주군은 총 사업비 178억을 투입해 급수체계를 정비하고 블록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26km에 달하는 노후 상수관로 정비와 함께 유지관리시스템을 갖춰 유수율을 85% 이상으로 높일 계획이다.

이 과정(사업계획 수립 시부터 공사 시행 전 과정)에서 무주군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고 주민불편도 최소화 시킬 방침이어서 기대를 모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추석명절 원활한 수돗물 공급 '총력'

비상급수대책 추진

진안군은 6일 추석명절을 맞이해 지역주민과 고향을 찾아오는 귀성객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추석명절 대비 비상급수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은 5개 취·정수장을 비롯한 배수지, 가압장, 소규모 수도시설의 각종 펌프 등 상수도시설물에 대한 사전점검을 마치고 부족한 상황에 대해서는

추석명절 전까지 보수를 마쳐 물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나갈 계획이다.

올해는 예년에 비해 심한 가뭄으로 인한 취수원 고갈로 상대적으로 시설이 열악한 마을상수도시설 이용 지역에 대한 비상급수 대책으로 명절 전·후로 발생할 수 있는 급수사고 등에 대비해 사업소 보유 운반급수차량(5톤)을 상시 대기 중이며, 긴급보수업체(6개소)와 연계한 복구체계를 정비하는 등 비상급수에 만전을 기하

고 있다.

이항로 군수는 "추석명절 연휴기간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과 주민들이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비상급수상황실을 14일부터 18일까지 운영하는 등 추석명절 전후 주민생활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특히 명절 연휴에는 물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주민들의 물 절약이 필요한 만큼 절수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진장소방서, 가을철 등산목 안전지킴이 운영

무진장소방서(서장 조용주)는 9월부터 10월까지 산악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가을철 산악인급구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등산목 안전지킴이를 실시한다.

등산목 안전지킴이는 주요 등산로 입구에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들을 배치하여 군민의 안전한 산행을 유도하여 산악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구급차 등을 급조 배치해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운영된다.

이에 무진장소방서는 국립공원 덕유산, 도립공원 마이산 등산로 입구에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을 한 조로 등산목 안전지킴이를 배치한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의회, 현장중심 의정활동 펼쳐

친환경 인삼 신기술 시범단지 등 관내 주요사업장 방문

진안군의회(의장 박명석)는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2일간에 걸쳐 관내 13개 주요사업장을 방문, 추진상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현장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했다.

첫날에는 관광형생태축산육성사업장, 학천지구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장, 친환경인삼 신기술시범단지조성사업장, 유기농 클린벨트 조성사업장, 쌀가공식품 상품화 지원사업장 등을 방문하며 현장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차질 없는 사업추진을 당부하였다.

둘째 날에는 유기농 빨리 조성사업

장, 오미자밭 한해대책 및 관정, 추진정수장 등을 방문하였다.

특히 지난달 수돗물 민원 발생 지역인 주천면은 방문하여 현장 관계자들의 물 빠른 민원 대처에 격려를 표하며, 군민들의 식수와 생업지장에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당부하였다.

박명석 의장은 "향후에도 군정의 주요 사업장을 수시로 점검하여 군민이 만족하는 방향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완주 출산장려정책 효과 '특독'

지난해 출생아수 902명으로 급증

완주군의 출산장려정책이 아이 울음소리가 많이 들리는 지역으로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다.

6일 완주군은 최근 통계청의 '2015년 출생 통계'와 행정자치부의 '지자체 출산율 제고방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생아수는 물론 출산율에서 증가세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두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3년 동안 완주군의 출생아수는 늘어나고 있다.

2013년 812명이었던 출생아수는 2014년 797명으로 다소 주춤했으나, 지난해에는 902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출생아수는 도내 14개 시·군 중 4번째로 많은 것이다.

완주군의 경우 한 여성이 기임기간(15~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를 나타내는 지표인 합계출산율은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2013년 완주군의 합계출산율은 1.612명, 2014년에는 1.577명이었으나, 2015년에는 1.697명으로 늘었다. 이는 전국 및 전북 평균수치를 훨씬 웃도는 것이다.

이에 따라 완주군의 지난해 출

산율 개선도는 2013년과 2014년에 비해 각각 0.085명, 0.120명으로 개선됐다.

완주군은 2015년부터 출산장려금 상향조정(369 보육 프로젝트)과 산후조리 건강 프로젝트, 영양플러스사업, '해피맘 파워맘 출산교실' 등 다양한 출산장려 및 프로젝트 등을 시행하고 있다.

이중 369 보육 프로젝트는 셋째 아이 이상 출산시 장려금을 종전 15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첫째 아이 출산시에도 30만원, 둘째 아이 출산시에는 70만원의 출산 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6세부터 9세까지의 셋째아이부터 월 1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한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완주군의 출생아수는 도내 4번째 규모인데다, 지난해부터 증가세를 기록함에 따라 아이 울음소리가 큰 지역으로도 발돋움하고 있다"며 "369 프로젝트 등을 포함한 다양한 출산 및 보육정책을 펼쳐 여성이 당당하고 아이들이 행복한 완주군을 만드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무주군의회, '신통방통제' 시행 눈길

신문·방송 적극 활용 의정활동 전개

'지방지지를 선도하는 의회'를 표방하며 출범한 후반기 무주군의회가 미래 지향적인 새로운 의정 활동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신통방통제'를 시행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신통방통(新通放通)은 '신문으로 통하고 방송으로 통한다'는 의미를 가진 합성어로 군민과 소통을 강화하고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의정 활동을 위해 행정, 경제, 사회, 문화, 복지, 안전, 규제 등 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업무에 대해 신문이나 방송에 보도되는 우수, 모범 사례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 문제점 사업이나 분야에 대한 자료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공유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보도 내용의 단순한 수집에만 그치지 않고 현장 조사와 통계조사, 보도 사례의 성공요소와 시사점을 분석하여 군정에 접목할 사항을 도출하고 그 결과를 안전 심사나 행정사무감사 때 집행부에 정책 대안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유승열 무주군의회 의장은 "단순한 비판이나 지적만 쏟아내는 의회가 아닌 항상 배우고 연구하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선진 의회를 구현해 나가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특별블로그

장수군, 26일까지 여성농업인 생생바우처 지원사업 신청접수

장수군은 여성농업인의 건강관리와 문화활동의 기회 제공을 위해 '여성농업인 생생바우처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 접수를 받는다.

신청대상은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만 35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여성농업인 중 가구당 농지 소유면적(세대원 합산)이 5ha미만인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임업·어업을 경영하는 가구의 여성 농어업인으로 오는 26일까지 거주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여성농업인 생생바우처는 농협은행을 통해 카드를 발급받은 후 1인당 연간 12만원(자부담 2만원 포함) 한도 내에서 오는 12월 31일까지 미용실, 스포츠용품, 목욕탕, 저점, 영화관, 화장품점 등에서 사용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농업정책과(☎350-5418)로 문의하면 된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경찰서 적상파출소 추석 특별방범활동 전개

무주경찰서(서장 최성규) 적상파출소(소장 정상인)는 추석절 전·후를 맞이하여 특별방범활동에 들어갔다.

금융기관, 상가, 주유소 등 다액 현금을 취급하는 대상 업소들에 대하여 특별 방범진단을 실시하여 사전 범죄예방 활동을 추진 중에 있다. 특히, 농촌마을을 대상으로 하는 빈집털이 절도, 교통시방사고 예방 등도 함께 추진 중으로 협력단체인 자율방범대, 생활안전협의회 등 주민과 함께하는 치안활동을 펼쳐 공감 치안활동을 하고 있다.

정상인 소장은 "명절 범죄분위기를 사전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경찰과 협력단체가 합동 평온한 명절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경찰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범규위반 근절 합동 캠페인

장수경찰서(서장 윤중섭)는 6일 어린이 교통사고예방을 위해 장계초등학교 앞에서 장계초등학교 교직원, 학생, 녹색어머니회, 경찰관 등 50여명이 참여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위반행위단속 및 교통사고예방,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 홍보를 위한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법규위반행위단속 및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전 위반행위 집중단속 홍보와 어린이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윤중섭 서장은 "어린이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위반행위단속 및 어린이통학버스 법규위반행위 단속을 강화함으로써 어린이교통사고를 근절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한돈협회 진안군지부, 장학금 전달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진안군 축산단체가 돼지고기와 장학금 등 기부에 나서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진안군은 6일 대한한돈협회 진안군지부(지부장 구경본)에서 후원한 추석명절 위문품 돼지고기 1,000kg(500만원 상당)과 장학금(500만원)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대한한돈협회 진안군지부에서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돼지고기 소비촉진과 함께 어려운 이웃을 돕고자 마련되었다.

구경본 지부장은 "소외받고 불우한 우리 이웃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즐겁고 행복한 추석을 맞이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계속 적은 정성이나마 훈훈한 사회를 만드는데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돈협회 진안군지부에서는 회원들의 정성을 모은 500만원의 장학금을 진안사립 장학재단에 기탁하였다.

이날 회원들은 "적은 금액이지만 자라나는 고향의 후배를 육성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어 회원들의 뜻을 모아 장학금을 기탁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